

# “인구 10만의 잘사는 고흥 만들자”

### 고흥군, 소통·인구 문화관광 등 6대 분야 100대 공약 확정 전문가 초청 특강과 군정평가위원회 개최 공약 완성도 높여

고흥군이 10년 뒤 인구 10만명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선 8기 6대 분야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등 지역 발전 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군은 그동안 공약의 실천력과 이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공약관련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초청 매니페스토 특강과 군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군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공약의 완성도를 높였다.

공약은 소통·인구, 문화관광, 농수축산, 보건복지, 지역개발, 교육·경제 등 6대 분야 100대 공약으

로 운영민 군수의 임기 내 92개 공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거나 국가 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공약 8개는 임기 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공약사항은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구축 ▲드론 중심도시 건설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 ▲건강한 바다환경 회복대책 적극 추진 ▲농수축산물 6차 융복합산업

육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등이 있다.

공약 완료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9조7609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8조5461억원, 도비 4462억원, 군비 4779억원 등이다.

사업비 중 국비의 비중이 높아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정평가위원회는 “공약에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핵심 사업들이 포함된 만큼, 공약을 성실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광양시 ‘2023 매화축제’ 총감독 공모

### 9일까지...매화축제 세부 실행계획 수립·운영

광양시가 오는 9일까지 ‘2023 매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총감독을 공모한다.

광양시는 내년 3월, 4년 만에 개최될 광양매화축제의 정체성을 살리고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품격있고 실험적인 축제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광양매화축제 총감독은 광양매화축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운영하고, 대외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축제를 총괄·연출한다.

응모자격은 꽃 관련 축제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모집기간은 7-9일(3일간)이고 방문접수를 한다. 면접 일시와 장소 등은 별도 통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매화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총감독을 선임할 것”이라며 “성공적 축제를 위한 열정과 참신한 기획력을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시·남해군 자매결연...해저터널 등 상생 협력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이 여수시청에서 자매결연을 했다.

지난 29일 협약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임태식 남해군의회의장,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두 지자체는 관광·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할 방침이다.

2029년 완공 예정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립에 따른 생활권 통합 문제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해저터널이 건립되면 생활권 확대도 동시 통합과 지역 경제 성장에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남해군과 여수시는 오랜 세월 역사와 생활상을 공유해온 이웃사촌”이라면서 “힘을 모아 빛나는 남해안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코딩 자격증 취득반 운영 성료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곡성창의융합교육관 꿈키움마루에서 진행한 YBM COS(Coding Specialist) 4급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응시한 17명(초등학생 3·6학년)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YBM COS 4급 자격증 취득 과정 수업 모습.

이번에 취득한 4급 자격증은 YBM의 등록민간자격으로 취득과정을 통해 코딩 프로그래밍 활용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과정을 통해 코딩 이해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하고, 문제 해결 및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YBM IT COS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을 통해 꿈키움마루에서 교육하고 있는 코딩 학습 과정에 대한 검증

과 곡성형 STEAM 교육 과정 표준화를 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곡성창의융합교육관 꿈키움마루는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곡성군과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창의교육 플랫폼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여수해경은 지난 28일 여호항에서 박제수 여수해경서장과 해경, 지역민,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호파출소 개소식을 가졌다.

# 여수해경, 여자만 지킴이 ‘여호파출소’ 개소

### 여호출장소서 승격...여자만 해양 안전 강화

여수해양경찰서 관할 고흥군 여호항 여호출장소가 파출소로 승격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자만의 해양 안전과 치안 강화를 위해 최근 고흥군 점암면 여호항 여호출장소가 파출소로 승격해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여호파출소는 국가 어항인 고흥군 여호항에 위치해 여자만 일대의 해상치안 수요 증가에 따라 파출소로 승격했다.

경찰관과 연안 구조정, 순찰차가 추가로 배치돼

해양 안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제수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여호출장소가 파출소로 승격된 만큼 빈틈없는 임무 수행으로 더 나은 해양 안전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파출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자만”은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를 중심으로 보성군·순천시·여수시·고흥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해를 말한다. 갯벌에 나는 풍부한 수산물과 낙조가 유명하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광양제철소, 장애인 사회성 향상 돕는다

### 고운걸을 힐링사업 발대...이달부터 불링선수 육성·걷기대회 등 포스코1%나눔재단 5000만원·여수광양항만공사 2000만원 지원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가 최근 광양 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불링과 우리길 고운걸을 힐링사업 발대식’을 갖고 나눔문화를 확대한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불링과 우리길 고운걸을 힐링사업은 장애인 전문 스포츠인을 양성하고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성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펼쳐왔다.

올해 4차년도 사업은 포스코 직원들의 급여 1%로 조성된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5000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내년 10월까지 운영한다.

12월부터 밖에 나가기가 어려운 지역민의 심신 건강을 위해 1대1 매칭을 통해 순천만 등의 명소를 방문하는 ‘힐링 걷기’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건강 걷기대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야외활동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들에게는 홈 트레이닝 도구를 전달하고 트레이너가 참여해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HOME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 코치의 지도 아래 불링선수를 육성하고 불링대회 개최와 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전문 스포츠인 육성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불링선수 육성 부문에서 이 사업을 통해 훈련을 진행한 불링선수들이 전남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 5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어 신백호 선수가 23일 장애인 불링 국가대표로 선정되는 성과를 봤다.

광양제철소 아우름봉사단은 지역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우미로 참가한다.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장애인 전문 스포츠인 육성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고품격 힐링 프로그램 사업 발대식이 모두의 격려 속에 출발했다”며 “광양제철소는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제철소가 불링과 우리길 고운걸을 힐링사업을 발대했다. 왼쪽부터 안동규 광양제철소 아우름봉사단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이영재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장, 박정은 서산나래 원장, 정현주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장. <광양제철소 제공>

# 여수시,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 5일~내년 3월 24일...2분 이상 공회전 때 과태료 5만원

여수시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오는 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특별단속 기간 주차장,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42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급가속장치, 냉동차, 정비 중인 차 제외)로, 대기 온도가 0도 이하 또

는 30도 이상일 경우 제외된다.

공회전 경고 후 2분 이상(대기 온도 5도 이하 또는 25도 이상일 경우 5분 이내) 불필요한 공회전을 지속하는 때에는 과태료(5만원)가 부과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42개소는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후생태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순천시의회 ‘꿀벌 실종 피해농가 지원’ 건의안 채택

### 김태훈 의원 “농가 경영안정 실질 지원 시급”

순천시의회는 김태훈 의원(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월동 준비 중인 꿀벌이 대량 실종되면서 순천지역 전체 양봉농가의 17.8%인 4295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는 너무 좁아 양봉 농가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남충봉아부패병

과 부처병 등 전염병 2종과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피해만 보상한다.

최근 꿀벌 실종 피해는 주로 응애류와 같은 해충, 이상기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 부족으로 가

입률도 2.6%에 그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화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식량생산 증대와 생태계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꿀벌 실종 피해에 따른 양봉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실질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종은 기자 ejkim@kwangju.co.kr

